

“내 탓, 네 덕”... 요즘 KIA, 이래서 잘 나갑니다



지난 22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4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의 경기에서 KIA 선수들이 5-3으로 승리를 거둔 뒤 그라운드에서 기쁨을 나누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팀 성적 상관없이 투수·야수, 서로 격려와 칭찬
이대형·김민우·김태영 등 영입 선수들도 한마음
선후배 술선수범·소통의 덕아웃에 성적도 '쑥쑥'

“내 탓이요, 네 덕이요.”

올 시즌 KIA 덕아웃 분위기가 훈훈하다. 잘못은 내 탓, 잘된 것은 동료의 힘이라고 말하는 선수들이다.

지난 22일 KIA는 후반기 스타트를 끊는 경기에서 LG를 상대로 5-3 승리를 거뒀다. 에이스 양현종이 2회에만 3실점을 하면서 흔들렸지만 이내 동점을 만든 KIA는 역전까지 이루어냈다.

경기 끝난 후 양현종은 “야수들에게 미안하고 고맙다. 다음에는 야수들이 힘들 때 내가 막아주는 역할을 하겠다”며 승리를 안겨준 야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2회 수비에서 실수를 했던 안치홍에 대해서도 오히려 고마워했다.

양현종은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 (안)치홍이가 실수를 하고 나서 정말 많이 미안해 했다. 하

지만 바로 중요한 안타를 때려주고 내가 마운드에 내려간 뒤에 좋은 수비도 해줬다. 의연한 동생이다”고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결승타의 주인공이 된 신종길도 “앞에서 선수들이 잘 쳐줘서 편하게 할 수 있었다”고 동료에게 공을 전했다.

초반 하위권에서 힘들 시간을 보낸 때에도 덕아웃 분위기는 따뜻했다.

선동열 감독이 먼저 ‘소통’을 말하며 부드러운 덕아웃을 더했고, 선수들은 서로 격려하고 스스로가 장난을 치면서 덕아웃 분위기를 띄웠다. 야수들은 “지키면 이겨주겠다”고 투수들을 격려했고, 투수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미안해 했다.

주장 이범호는 후배 안치홍에게 수훈선수를 양보하기도 하는 등 함께 가는 선수단이다.

이대형·김민우·김병현·김태영·최영필 등 외부에서 유입된 새 얼굴도 격의 없이 어우러진 모습이다.

팀의 분위기 메이커인 나지완은 ‘선배들의 술선수범’이라고 말한다. 나지완은 “김병현·김민우 같은 선배들이 술선수범하시는데 어떻게 동생들이 안 따를 수 있겠느냐. 잔소리를 하시기 보다는 행동으로 움직이시면서 후배들을 이끄신다. 선배들이 보여주니까 후배들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분위기도 좋다”며 “1·2년 같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래 본 사람들 같다. 필도 선수들과 잘 어우러지는 등 최고다”며 선수단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주장 이범호의 지론도 선수단 분위기에 훈풍을 몰고 왔다. 할말은 마음하게 하는 주장이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즐거움 야구’다.

이범호는 “선수들에게 별 말을 하지 않는다. 웃고 하자고 얘기를 한다. 웃고 하는 분위기가 제일 중요하다. 즐겁게 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며 완하게 웃었다.

달라진 KIA 덕아웃 분위기가 대반전극을 연출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덕아웃 특특특

나지완 “팀 4000도루는 내 발끝에서” 선감독 “6경기 무승 홀튼 방출 할 수도”

▲“제가 그린라이트라.”

훈련을 위해 장비를 챙겨두고 나오던 나지완이 폭탄선언을 했다. “4000도루 노리고 있어요. 나가면 초구에 땀이다.” 지난 22일 경기에서 신종길이 8회 도루에 성공하면서 23일 경기전까지 KIA는 팀 4000도루에 한 개를 남겨 둔 상태였다. 나지완은 아무렇지 않다는 표정으로 “그린라이트라...”고 말해 다시 한번 덕아웃을 폭소로 몰고 갔다. 나지완의 ‘도루 욕심’에 대해 전해들은 선동열 감독은 결정 웃으며 “나가면 바로 빼야겠네. 얘기해. 우리 외야 자원 많다고. 엔트리에서 나지완도 빼버릴 수 있다고”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그럴 수도 있을 수도...”

23일은 경기가 홀튼에게 올 시즌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기였다. 초반 뜨거운 질주를 했던 홀튼은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23일 경기 전까지 4.58의 평균자책점으로 5승7패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특히 홈에서 열린 6경기에서 6.16의 평균자책점을 보이며 단 1승도 거두지 못했다. 외국인 선수 웨이버 공시 마감일은 24일. 그만큼 홀튼에게는 기로에 선 순간이었다. 경기 전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 홀튼에게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선동열 감독은 “그럴 수도, 있을 수도...”라는 말과 함께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다.

/김여울기자 wool@

박지성 고별무대, 축구 별 다 뜬다

내일 삼삼경기장 ‘K리그 올스타전’

K리그 별들의 축제가 금요일 밤 삼삼별을 뜨겁게 달군다.

25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올스타전 경기가 열린다. ‘K리그 올스타 with 팀 박지성’이라는 이름으로 치러지는 이번 행사는 의미 있고, 역사적인 축제가 될 전망이다.

‘영원한 캡틴’ 박지성이 국내 팬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축구화를 신는다. 해설위원으로 주가가 급상승한 ‘초롱이’ 이영표도 ‘팀 박지성’으로 함께 그라운드를 누빈다.

팀 K리그는 국내 최고의 선수들로 꾸려졌다. 월드컵 스타인 이근호를 필두로 김승규, 김신욱을 비롯해 차두리, 이동국 등 당대 최고의 축구스타들이 별들의 잔치에 함께 한다.

히딩크 감독과 황선홍 감독의 지략대결도 관심사다. 최용수, 서정원, 박형서 감독도 코치로 축재에 동참한다.

7년 만에 ‘하프타임 이어달리기’도 부활한다. ‘팀 K

리그’ 선수들과 ‘팀 박지성’ 선수들이 팀을 나눠 이어달리기를 하며 팬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심판으로 변신하게 될 감독들도 관심사다. 하석주 전남 감독과 최용수 서울 감독이 전·후반 주심으로 그라운드를 누빌 예정이다. 김봉길(인천), 조민국(울산), 이상운(성남), 박경훈(제주) 감독은 부심과 대기심을 담당한다.

관중석에는 월드컵 공인구 ‘브라주카’ 선물도 주어진다. 골이 터지면 득점선수가 자신을 응원해준 팬에게 축사에서 ‘브라주카’를 선물한다. 또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다양한 퀴즈 이벤트를 마련해 푸짐한 선물을 제공한다. 경기가 끝난 후에는 양 팀 선수들이 각자의 유니폼을 관중석에서 전달한다.

경기 전 장내·외에서 펼쳐지는 행사도 다채롭다. 장외 북측광장에 오후 6시20분부터 이근호, 차두리, 김신욱, 이영표, 박지성, 김승규, 이동국, 염기훈이 팬사인회를 갖고 관중들을 맞는다. 올스타전 홍보영상에서 트랙터를 몰았던 이근호의 등장도 관심사. 실제 이근호가 몰았던 ‘트랙터’와 같은 모델이 포토타임의 기회를 선사한다. /김여울기자 wool@



한국 여자 플뢰레, 아쉬운 4위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세계 펜싱 선수권 대회 여자 플뢰레 단체전에서 대한민국의 정숙희가 프랑스의 이소아라 티 뷔스와 경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